

6000원으로 한 끼 해결... '가성비 맛집' 구내식당 뜬다

고물가 시대 직장인 복지...광주 지역 구내식당 둘러보니

첨단산단 식당 하루 700여명 복직... 지난해 6월 대비 3.5배 돈까스·제육볶음 메뉴도 다양... '구내식당 투여족'도 생겨나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구내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25분.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층 구내식당은 식당 문을 열기 5분 전부터 20여명이 넘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잡곡밥과 돈까스, 쫄면, 달걀장조림, 열무나물, 단무지무침, 배추김치, 유부장국, 야채스프다. '돈까스 맛집'이라 소문난 탓인지 유독 많은 직장인들이 몰렸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여·28)씨는 "작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올라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며 "근처 밥집보다 맛있는 데다, 가격도 싸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구내식당의 점심 식사 가격은 6000원. 식권 4장을 한 번에 구매하면 2만2000원으로, 5500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6월 입점할 당시 점심 식사 인원 200여명에서 최근에는 700여명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식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현상은 온갖 식당들이 즐비한 다른 광주 주요 도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대표빌딩 내 구내식당은 배식대에서부터 식당 출입구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날 '매인 반찬'인 제육볶음은 손님 20여 명이 음식을 뜨고 지나가자 동이 나고 직원들은 제육볶음이 가득 찬 새로운 통으로 바꿔 놓기 바빴다.

식사를 하던 직장인 김모(33)씨는 "월세랑 공과금,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급밥 한 그릇도 1만원에 육박하는 등 식대 지출이 늘었다"며 "6000원에 이 정도 수준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주변에 찾을 수 없어 항상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근 우체국보험광주회관 내 구내식당에도 낮 12시가 넘어가자 100석이 넘는 좌석은 만석으로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미리 구매한 식권을 입구에 내밀고 입장하는 손님들이 대다수였다.

이 구내식당의 하루 평균 이용객만 60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여명이 더 늘었다고 식당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구내식당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우체국보험광주회관 구내식당이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오른쪽)과 식당 이용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첨단공 광주본부 내 구내식당 입구.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구내식당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우체국보험광주회관 구내식당이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오른쪽)과 식당 이용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첨단공 광주본부 내 구내식당 입구.

사장은 전했다.

직원들만 이용가능한 광주시청 구내식당 역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광주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하루 평균 750명(점심 600명, 저녁 150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내식당이 인기가 높아진 것은 물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에도 비교적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내식

당 대신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른 회사의 구내식당까지 찾아 가는 등 그만큼 지출을 줄여보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광주의 비빔밥 평균가격은 지난 1월 기준 9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00원)보다 4.60%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은 7100원에서 7800원으로 9.86%나 급증했다. 이는 평균가격으로 실제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

끼는 외식비 가격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직장인 문모(여·27)씨는 "분식집에서도 6000원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얼마 전부터 친구들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등 지출을 줄이고 있다. 고물가에 삶이 팍팍하다"고 하소연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소외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기문데)은 최근 광주 지방검찰청에서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과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현재 4300여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산엑스포 영업사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주요국에 개최 지지 호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아프리카·카리브해 주미대사를 만나 '2023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유치 활동을 펼쳤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주요국 주미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와 함께 각국 대사들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국과 부산의 비전을 강조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주미한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초청행사는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돈독히 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 태평양 연안에서는 마셜제도 등 12개국 주미대사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각국 대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산엑스포 개최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현대차장재준 사장, 호세 무노스(Jose Munoz)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신재원 사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정의선 회장은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와 국가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장과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각국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간 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준비 중인 부산엑스포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산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부산이 세계박람회 의의 구현을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의선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각국 주미대사들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해 전통화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기아의 유럽 생산거점이 위치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연이어 방문해 양국 총리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였다. 또 현대차그룹은 해외 현지 방문과 방한인사 면담 등을 통해 20여 개국 고위급 주요 인사들을 40여회 이상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광주변호사회 방문 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지난 28일 광주 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세행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영석 청장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역 전반에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방안, 현금영수증 제도, 인지세 납부·개정사항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은 변호사회 회원에 대한 세금교육을 요청했고, 현금매출명세서 개선 등을 통해 신고 편의를 향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영석 청장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제2도약 기반 구축 상생 일터 결의대회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은 지난 28일 분사 중앙 광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상생 일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판매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GGM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올해 생산목표 4만5000대 달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유연한 생산체계 확립 등을 결의했다.

또 전기차 생산시설 완벽 구축, 향후 전기차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이에 따른 2교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GGM은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40여 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정을 고

려해 올 생산목표를 4만5000대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부품이나 자재의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등 최고의 품질을 확보했다. 매달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월과 2월 계획된 생산목표를 100% 달성했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로 자동차 업계 전반의 판매가 부진하지만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년 하반기 전가량 양산, 이와 연계한 2교대 전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 병행으로 캐스터 판매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고 품질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